

이분적 사회구조 반한 고정관념 틀 깨부순다

‘리처드 케네디: 에이시-듀시’ 전

6월 4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20점 회화·영상 퍼포먼스 전시

오페라를 기반으로 음악과 퍼포먼스, 회화 조각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이분적 사회구조의 고정관념 틀을 깨부수는 전시가 광양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6월 4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전시장 5에서 열리는 ‘리처드 케네디: 에이시-듀시(Richard Kennedy: Acey-Deucey)’ 전이다.

미국 출신의 리처드 케네디(38)는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다. 음악, 퍼포먼스는 물론 회화, 영상 등 전방위적인 작업을 펼치며 파격적인 예술 형식을 제시하는 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리처드 케네디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발레를 공부하며 예술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후에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위키드, 포세와 같은 공연에도 출연했다. 공연예술을 시작으로 상업공간을 떠나 창작활동으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최근에는 회화, 조각, 영상의 미술 분야에도 두각을 드러냈다.

그의 작품은 흑·백, 남성·여성, 정신·육체, 스승·제자, 성공·실패, 사회·개인, 영속성·순간성 등 세상의 이분법적 고정관념과 가치 체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허물어 버린다.

다분히 자전적인 소재에서 작업이 비롯되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으로 승화하며, 추상적 표현이더라도 구체적인 신체의 흔적을 남겨 예술 활동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영상 ‘기적을 만드는 중(Miracle W.I.P)’을 포함한 20여 점의 회화와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방으로 구분, 방마다 특성에 맞는 색상으로 연출했다.

첫 번째 방인 ‘검은방’은 작가의 최신 영상 ‘기적을 만드는 중’을 만나볼 수 있다. 철학처럼 어두운 전시장 배경으로 짙은 숲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연출됐다.

여덟 개의 모니터에서는 리처드 케네디의 퍼포먼스 영상이 상영된다. 영상 속에는 잘라진

▶리처드 케네디 ‘Pop Your Head Cassie 2021’

▼리처드 케네디 ‘우유에 쿠키’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든 숲이 펼쳐진다. 크리스마스 후 트리로 쓰던 버려진 나무를 주워와 가상의 숲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방은 ‘하얀방’이다. 학교 교실처럼 꾸며놓은 ‘우유와 쿠키’ 설치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그는 학교를 사회의 축소판으로 봤다. 작품을 통해 학교에서 받았던 훈육과 그 속에서 느꼈던 모멸감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퍼포먼스를 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장에 제시했다.

작품을 통해 교사·학생, 착한·나쁜 학생의 역할을 바꿔가며 기존의 가치 체계를 전복하기도 한다. 작품이 배치된 흰 전시는 ‘계몽(enlightenment)’ 그야말로 학생을 ‘빛(light)’으로 인도하려는 교육 현장인 동시에 개개인 이 가지고 있는 반짝이는 호기심을 의미한다.

마지막 방 ‘장밋빛 방’은 마치 놀이방처럼 아늑하고 또 조금은 기이하게 보이면서도 다채로운 회화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리처드 케네디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공연과는 달리 고정된 형태에 예술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회화 작업의 깊이를 더했다. 커다란 몸짓으로 붓을 휘두르고, 그 흔적을 캔버스에 남기고, 다시 켜켜이 붓질을 해 이전의 행위를 덮는 그의 회화는 열핏 추상표현주의처럼 보일지라도 작가의 신체 흔적을 강하게 남겨, 퍼포먼스적 요소를 강조한다.

캔버스 조각을 천처럼 엮은 직조 작업도 선보인다. 자신의 ‘망친’ 작업을 잘라서 재구성한 것으로, 예술에서는 단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 형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패마저도 다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찾은 전남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든 신작 음악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artmuseum.jeonn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앙코르 해동’ 시작

25일 ‘홍순관의 쌀 한 톨과~’

(재)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이 2023년 ‘앙코르 해동’ 공연을 시작한다.

2023년 ‘앙코르 해동’의 상반기 프로그램은 대중음악, 탕고, 연극, 창극 등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입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공연인 ‘홍순관의 쌀 한 톨과 노래 한 줄’은 대중음악 공연으로 25일 오후 4시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열린다. 가수 홍순관, 해금 연주자 홍다솔, 시인이자 화가인 임의진이 함께 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가수이자 평화운동가인 홍순관은 부산 대미대 출신이지만 정신대 할머니 관련 장기공연 ‘대지의 눈물’을 비롯해 제일동포 조선학교와 인연해 노래를 나눔해왔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좀 더 특색있고 창작 행위에 기반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을 섭외했고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이 사라져가는 한국 감성의 멜로디를 담양에서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예술인들에게는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좋은 공연으로



가수 홍순관

담양군민들과 방문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담양이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해동문화예술촌은 ‘앙코르 해동’의 3월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담양만의 특색있는 공연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작년과는 다른 변화를 곳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 소셜미디어와 (재)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벤자민 피아트 ‘엘도라도 투어’

내달 1일 오후 5시20분 광주극장

프랑스 영화 ‘라 비 앙 로즈’ 상영

프랑스 뮤지션 벤자민 피아트의 ‘엘도라도 투어’ 콘서트가 4월 1일 오후 5시20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프랑스문화원은 3월 전세계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문화를 기념하는 프랑코 포니의 달을 맞아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

프랑스 가수 벤자민 피아트는 콘서트로 공연 활동을 하다 2013년 첫번째 앨범을 발매하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팝-포크 색깔을 띤 트리오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프랑스문화원의 지원으로 전세계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다.

2020년 라틴 아메리카 투어에서 영감을 받은 벤자민 피아트는 라틴 멜로디와 춤을 곁들인 앨

범 ‘엘도라도’를 발매했고 한국투어에서 엘도라도 여행이라는 어쿠스틱 콘서트를 펼친다. 감성적인 가사와 활기찬 비트, 이국적인 분위기를 섞은 특유의 상송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이번 광주극장에서의 콘서트는 3월 한국 순회공연 피날레 무대다.

벤자민 피아트는 인천(24일), 대전(25일), 부산(26일), 대구(28일), 서울(30~31일)에 이어 광주 공연을 펼친다. 일렉 기타는 쥘 모로다.

콘서트 후에는 상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을 조명하는 영화 ‘라 비 앙 로즈’가 상영된다.

관람료는 예매시 2만원, 당일과 현장 구입시 2만5,000원이다. 예매는 디트릭스에서 하면 된다. 전화예매는 광주극장(062-224-58548)으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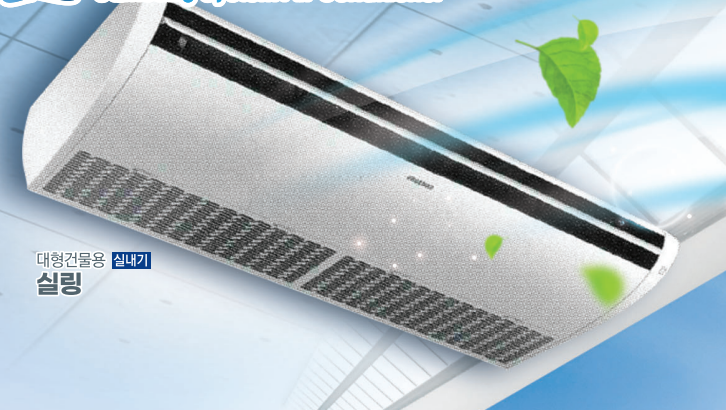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www.shsa.kr



대형건물용 실링
DVM S2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2022

서광주IC → 호남고속도로 → 동광주IC

용봉진입로 →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

전라랜드 용봉점

호남고속도로

용봉점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용봉지구대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